

언론사 연구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다: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 *

김영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글은 차배근의 여러 연구업적 가운데 언론사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한국언론학 연구사에서의 의의에 대해 고찰했다.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언론사 연구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다. 세계언론사에서 기존 연구성과가 거의 없거나 드문 미국신문사, 중국 전근대언론사, 중국 근대언론사를 연구, 저술했고 한국언론사에서는 전근대언론 <조보>, 개화기 일본 유학생의 언론출판활동, 중국 조선민족언론사, 대학신문사 등을 연구대상으로 개척했다. 이런 연구는 차배근이 언론사 연구에 비교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차배근은 또한 언론사 연구에서 언론학적 연구체계를 적용하여 역사연구에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틀을 제시했고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언론사 연구의 분석수준을 높였다. 현재까지의 업적만으로도 차배근은 평생을 학문을 탐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언론학 연구사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핵심어: 차배근, 언론사 연구, 한국언론학 연구사

* 이 연구는 2016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지원을 받았습니다.

** kimyounghee@snu.ac.kr

1. 머리말

한국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연구사와 교육사에서 차배근의 학문적 성과와 의미는 여러 면에서 매우 각별하다. 한국언론학사와 교육사에서 차배근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차배근이 쓴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 교과서가 한국언론학이 사회과학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언론학 교육이 단기간에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언론학 관련 학과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이고 1970년대 들어서도 주요 대학에 학과설립이 이어졌다. 당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미디어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미디어 대중화 시기가 되면서 신문학과 또는 신문방송학과로 불린 언론학 관련학과는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인기학과로 부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언론학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육한 역사가 짧아 활용할 만한 교재나 참고문헌은 매우 드물었다.

차배근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1972년 6월 우리나라 언론학 교육현실이 그랬다. 바로 그 시절 '박사논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차배근은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한 교재용 개론서 집필에 착수했다. 그렇게 차배근은 언론학 학부와 대학원생이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 교과서를 잇달아 간행했다. 당시 차배근이 저술한 <커뮤니케이션학 개론>(1976, 상·하), <사회통계분석방법론: 커뮤니케이션연구중심>(1977, 1978년 <사회통계방법>으로 개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1979, 1981년 <사회과학연구방법>으로 개제)은 언론학 전공자에게는 거의 필독 교과서였다. 이 책들은 2000년대에도 언론학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읽힌다.

이와 같이 차배근은 한국에서 언론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정립하고 언론학 교육이 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 차배근은 자신의 전공인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 연구 이외에 1980년 이후 언론의 역사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 성과를 내었고 2007년 8월 정년퇴직 이후 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연구, 저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차배근의 연구업적 가운데 언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차배근이 언론사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관점과 언론사 연구방법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차배근의 언론사와 학사/교육사를 주제로 한 주요 연구성과를 개관한 후, 차배근이 특히 관심을 갖고 수행한 주요 언론사 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의 의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2.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관점과 연구방법에 대한 인식

1)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배경

차배근이 언론사(言論史)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 I>(2000)의 서두에 있는 “달지한국언론사연구총서”를 내면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전공한 차배근은 1980년 미국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동서문화교류센터에서 잠시 공부하다가 언론사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와이대학 도서관에 중국과 일본 언론사 관계문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지만 우리나라 언론사에 관한 도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배근 자신이 우리나라 언론사를 공부해서 외국에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차배근, 2000, iii~iv쪽). 이때부터 언론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의 시작으로 하와이 교포 언론사와 <조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1980년 발표한 <조보> 연구후기에 차배근은 “본 소고는 학문의 방향을 행동과학적 입장에서 역사적 연구로 전환하면서 처음 시도해 본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하겠다”고 공표하여 자신을 채찍질하려는 의도를 밝혔다(차배근, 1980, 102쪽).

차배근은 언론사를 깊이 공부하려면 동서양 언론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미국신문사>(1983)를 펴냈다. 또한 그 무렵 차배근이 재직한 서울대 신문학과에 유학 온 대만학생 2명에게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언론사 관련문헌을 공부해서 중국언론의 역사를 두 권으로 정리했다(1984, 1985).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언론사부터 집필한 것은 한국언론사에 관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임근수 교수가 작고하기 전에 “한국언론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한국언론사부터 공부하지 말고 서양언론사, 중국언론사, 일본언론사부터 공부하면서 한국언론사 쪽으로 포위, 공격해 들어가라”라고 한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김정기, 2006, 246쪽).

그 후 차배근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먼저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태도변용이론>(1985),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1986), <설득커뮤니케이션이론>(1989)을 저술했다. 그러나 차배근은 다시 ‘후세에 오랫동안 전해질 책을 한 권 남기고 죽으려면 우리나라 언론사에 관한 책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론사에 다시 관심을 두었고, 특히 우리나라 전근대언론사와 근대언론 생성사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이름 남기자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연구가 과연 바람

표 1. 차배근의 저술목록과 한국언론사 연구서 계획목록

제 1학문인생기: 배근언론학 교재	제 2학문인생기: 달지한국언론사연구총서
①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세영사, 1976)	① 한국전근대언론사연구(1883년 이전)
②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하>(세영사, 1976)	② 한국근대언론생성사연구(1883~1910)
③ <사회통계방법>(세영사, 1977)	③ <한성순보·주보> 연구(1883~1888)
④ <사회과학연구방법>(세영사, 1979)	④ <독립신문> 연구(1986~1989)
⑤ <미국신문사>(서울대출판부, 1983)	⑤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
⑥ <중국전근대언론사>(서울대출판부, 1983)	⑥ 일제식민지시기한국언론사연구(1910~1945)
⑦ <중국근대언론사>(나남, 1985)	⑦ 일제시대중한인항일언론투쟁사연구
⑧ <태도변용이론>(나남, 1985)	⑧ 일제식민지시대일동포언론사연구
⑨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나남, 1986)	⑨ 광복후한국현대언론형성사연구(1945~1960)
⑩ <설득커뮤니케이션이론>(서울대출판부, 1989)	⑩ 한국언론학사연구(1882~2010)

주: 공저와 편저 = ① <신문학이론>(박영사, 1974), ② <한국신문학사>(정음사, 1977), ③ <언론통제이론>(법문사, 1978), ④ <설득커뮤니케이션개론>(나남, 1992), ⑤ <매스컴대사전>(한국언론연구원, 1993), ⑥ <중국조선민족언론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직한가, 과연 내가 후세에 남길 언론사 책을 쓸 수 있을까하는 회의로 인지적 부조화 상태(cognitive dissonance)를 겪으며 한동안 방황했다(김정기, 2006, 246쪽). 차배근은 이 무렵 역사연구방법론, 한문과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도 7~8년간 방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7년 오태호와 공저로 <중국조선민족언론사>를 출판했다. 이어 연구년으로 일본 도쿄(東京) 대학 사회정보연구소에 머무는 동안, 차배근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언론사 관련문헌을 수집하면서 이제부터 언론사 연구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표 1>은 2000년 차배근이 정리한 자신의 저술목록과 연구저술 계획목록이다(차배근, 2000, vi 쪽). 표에서 보듯 차배근이 “제 1학문인생기: 배근언론학 교재”로 저술한 책이 10권, “제 2학문인생기: 달지한국언론사연구총서”로 계획한 연구서가 10권이고 공·편저가 6권이다. 이 표는 또한 차배근이 특히 관심을 갖는 한국언론사 연구대상 시기가 전근대언론 현상시기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임을 보여준다.

차배근은 이와 같이 언론사 연구서 집필계획을 먼저 알리되 쓸 수 있는 책을 먼저 쓰고 쓸 수 없는 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자신이 밝힌 주제 이외에도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으면 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제 2학문인생기에 공부를 즐거운 낙(樂)으로 삼아 한국언론사를 공부하겠다고 했다.

2) 언론사 연구관점

언론의 역사를 연구하는 차배근의 연구관점 또는 연구입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비교사적 관점이다. 한국언론사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차배근이 특히 주목한 연구주제는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이었다. 이 주제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차배근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근대언론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에서 서양언론문물의 수용방법이나 방식 등은 중국·한국·일본이 각각 달랐으며 이는 각 나라의 근대언론의 정립과 성격 등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언론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도대체 서양의 언론문물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떠한 근대언론을 생성시켰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찰은 중국과 일본 근대언론의 생성과정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서양의 언론문물을 수용하여 근대언론을 생성시켰는지를 고찰해 이를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과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알아본다면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과 성격 등을 좀더 정확하게 규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일본의 언론사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차배근, 2008, v쪽)

이런 입장에서 차배근은 한문, 중국어와 일본어를 새로 공부하고 중국의 전근대와 근대언론 현상에 관심을 갖고 책을 간행했으며 일본의 서양언론문물 수용과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2003).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근수 교수의 영향을 받은 거시적인 비교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차배근이 회관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것은 그 후 자신이 가졌던 연구입장을 설명한 셈이었다.

비록 회관은 외국의 언론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연구했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국언론사를 보다 철저히 파헤치기 위한 일종의 우회적인 포위작전이었다고 하겠다. 이는 그의 학문적 생애가 말해주고 있다고도 하겠는바, 초기에는 세계언론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그다음은 동양언론사에 대한 연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한국언론사에 대한 연구로 들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회관의 이러한 학문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안다. (차배근, 1990, 15쪽)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차배근 역시 임근수가 취했던 역사관과 같은 역사관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근수가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에서 원용한 역사관은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사관(新民族主義史觀)이었다. 임근수는 신민족주의역사관을 민족을 중심에 두고 세계사 속에서 국사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실증적 방법론과 사회경제사관의 장점을 융통성 있게 취하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발전한 최선의 국사관(國史觀)으로 평가했다(임근수, 1975/1984, 217~226쪽). 그런데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사관은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주도한 안재홍의 역사인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된다(김수태, 2000, 105쪽; 이진한, 2011, 186~187쪽). 조선학운동은 1930년대 일본이 주도하던 조선연구에 대응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관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학술운동이었다(류시현, 2011, 26~27쪽). 이때 조선학의 목적은 조선적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었다. 조선학을 주도한 안재홍의 역사인식은 손진태를 매개로 하여 임근수의 역사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차배근이 임근수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차배근 역시 안재홍, 손진태, 임근수로 이어지는 신민족주의사관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관점은 영웅 콤플렉스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는 객관적 서술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차배근은 1983년 <미국신문사>와 2014년 보완 저술한 <미국신문발달사: 1690~1960>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적 현상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공정하게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계속해서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웅 콤플렉스’(the hero complex)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신문의 역사를 쓰다가 보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신문이나 신문인들을 과대평가하거나 미화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미국의 신문들이 그 발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미추 양면을 그대로 공정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차배근, 2014, vi쪽)

언론사를 연구하는 차배근의 또 다른 연구관점은 <중국근대언론발달사>(2008) 머리말에서 밝힌 중립적 입장의 서술관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5년 간행한 <중국근대언론사>는 중국 공산당관계 언론사는 소개하지 않고 주로 중화민국(타이완) 측의 입장에서

1) 안재홍의 언론사 연구의 시기구분과 서술방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통사인 최준의 <한국신문사>(1960) 서술방식과 임근수의 시기구분 연구(1975)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김영희, 2013).

서술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고쳐 쓰면서 중국 공산당관계 언론사도 다루고 또한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체제인 타이완과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언론사 연구대상과 언론사 연구방법에 대한 인식

차배근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공간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이나 양상이 각 시대별로 어떻게 변모·발전되어 왔는가를 통시적(通時的)으로 고찰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사라고 설명했다(차배근, 1988, 185쪽). 한편 지리적 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공시적(共時的)으로 비교, 분석하는 분야가 비교 커뮤니케이션 또는 국제 커뮤니케이션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이 통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고찰하는 커뮤니케이션사의 연구대상을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제도·환경)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변화 간의 상호영향관계”(차배근, 1990, 353쪽)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 사실을 단순히 기록하는 편년사적 나열은 진정한 역사연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체제와 언론정책 등의 변화와 관련해 언론현상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사회사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사의 연구범위에 대해 차배근은 임근수의 견해에 동의하여 매체발달사 연구도 필요하지만 매스 미디어에 편중하기보다는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배근의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에 대한 인식은 <사회과학 연구방법>(1990) 제 6장 ‘역사적 연구방법과 그 절차’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 6장에서 차배근은 역사적 연구방법을 “과거사에 대한 사료를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가를 정확히 기술하는 동시에 그 일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차배근, 1990, 350-351쪽)이라고 규정하고 역사적 연구방법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그 현상이 어떻게 변모·발전해왔는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과거의 시대적 상황이 그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차배근, 1990, 352쪽)

이처럼 차배근은 언론사 연구의 궁극적 목적 역시 언론학 이론연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언론사 연구를 언론학의 한 분야라고 본 것이다. 또한 “모든 연구문제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 배경은 모든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차배근, 1990, 349쪽)에 비록 역사를 연구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연구든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차배근은 역사연구가 실증적 사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쓴다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김정기, 2006). 실제로 차배근이 발표한 언론사 논문의 논의 전개 방식은 양적 연구와 비슷한 형식을 보인다. 2004년 <순환일보> 연구를 예로 들면 서론에서 첫째, 연구동기와 선행연구, 둘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먼저 밝히고 연구문제에 따라 논문을 구성해서 결론을 제시하여 양적인 실증적 연구와 형식상으로 유사하다.

또한 실제 연구에서 차배근은 문헌자료만이 아니라 관련인물을 면담해서 체험과 증언을 듣는 구술사적 방법을 활용하여(차배근, 1995, 57쪽) 자료수집을 위해 방법상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차배근의 언론사 주요 연구성과와 특징

1) 언론사 관련 주요 연구성과

<표 2>는 차배근이 언론과 미디어 현상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한 주요 연구목록이다.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6년 8월 현재 차배근의 언론사와 언론학사 관련 연구성과는 현재 인쇄 중인 저서를 포함해 8권, 공저 3권, 논문 16편, 공저논문 2편이 있다. 이외에 외국어로 간행한 논문이 일본어 논문 2편과 중국어 논문이 1편, 역사관련 기고문이 2편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대상과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차배근의 역사연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언론학의 학문연구사와 언론학 교육사

표 2. 차베근의 언론사·학사/교육사 관련 주요 연구목록

	저서(간행년도)	논문(발표년도)	
세계 언론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신문사>(1983) · <미국신문발달사: 1690 ~ 196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郵報>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한 소고(1984) · 조선조후기의 부학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 중국언론에 관한 특집에 제하여(2001) · 중공의 <新華通訊社>에 관한 소고: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1981) · 중국 근대신문의 신구지 <순환일보>에 관한 소고 1(2001, 공저) · 중국 근대신문의 신구지 <순환일보>에 관한 소고 2(2002, 공저) · 江戸시대말 일본의 서양언론물을 수용과정에 관한 소고(2003)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전근대언론사>(1984) · <중국근대언론사>(1985) · <중국근대언론발달사: 1815 ~ 1945>(2008)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조보>朝報에 대한 신문학적 분석고(1980)
한국 언론사	전근대 언론		
	개화기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기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 I: 1884 ~ 1898>(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1996) · 대조선인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에 관한 연구(1998) · 대조선인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에 관한 연구(속)(1999)
	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신문 100년>(2001, 공저) 	
	해외교포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조선민족언론사: 1945 ~ 1990>(1997,공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布哇韓僑新聞史略攷(1980) · 중국한민족교포언론의 始源攷(1994) · 毛澤東시기 중국의 한민족신문언론(1995)
	대학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 1952 ~ 1961>(2004) 	
언론학사/교육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신문학오십년사>(1977, 공저) · <한국커뮤니케이션학사>(2016년 8월, 발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관 임근수 박사의 언론사 연구입장(1990) · 한국 언론학의 생성과정에 관하여(1993) · 신문에 관한 초기의 역사적 연구의 실태와 발전: 고회관 임근수 박사의 공헌을 중심으로(1999) · 신문학 교육의 태동(2006) · 미국대학에서의 신문학교육의 성립 · 발전고(1982)
	미국		

에 관한 연구이다.²⁾

〈표 2〉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1976년 간행한 차배근의 첫 저서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상권의 제 2장 ‘커뮤니케이션학의 성립과 발전’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커뮤니케이션학 성립과정과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 9장 ‘커뮤니케이션 상황론’은 세계 커뮤니케이션사와 한국 커뮤니케이션사를 다루었다. 1988년 이 책의 전정판 상권에서도 제 2장 ‘커뮤니케이션학의 성립과 발전’, 제 3장 ‘커뮤니케이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차배근은 1979년 저술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의 제 6장에서 역사적 연구방법과 그 절차를 설명했다.³⁾

이와 같이 차배근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이 주요전공이지만 커뮤니케이션학의 개론서 내용에 학문의 발전과정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고 연구방법을 주제로 하는 저서에도 독립된 장으로 역사적 연구방법을 포함했다. 이런 저술내용도 차배근이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와 역사적 연구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2) 미국신문사

차배근이 언론사 연구에 뜻을 둔 후 언론사 분야로 제일 먼저 저술한 책은 1983년 간행한 〈미국신문사〉이다. 미국신문사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행된 책이었다. 차배근은 저술목적을 첫째, 언젠가 한국신문사를 체계화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그 준비과정으로 신문사 기술방법을 공부하기 위해 우선 미국신문사를 편역했고 둘째, 신문학 관계 교재난의 극복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외국신문사나 비교신문론 과목에서 미국신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 한국에서 미국신문(사)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이 없어 교재가 빈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차배근의 한국언론학사와 교육사 관련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본격적 역사 연구는 아니지만 그가 발표한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1987),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1989), “한국언론학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학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1992)는 한국의 언론학 교육사와 당시 언론학 교육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이다. 차배근이 한국언론학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 〈언론학 교과목 현황 자료집〉(2001)을 펴낸 것도 언론학 교육사에 대한 관심에서 만들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한국언론학 교육사상 처음으로 언론 관련학과의 교과목과 강의계획서를 모아 펴낸 것으로 한국언론학 교육사의 귀중한 사료이다.

3) 이 책은 1981년 책 이름을 〈사회과학 연구방법〉으로 변경했고 1991년 내용을 보완한 전정판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언론과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기에 출현한 언론 전문잡지 <신문평론> 창간호에는 광복산이 주도해 1947년 설립한 조선신문학원 개원식에서 있었던 강연 “미국신문 현황”(김동성, 1947)이 수록되었고, <신문평론> 제 4호의 미국 공보원이 제공한 “미국신문론”(1948)과 5호의 “미국 신문계의 이모저모: 외국 특파원론”(1948)에서 미국신문사를 소개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1950년대에는 <신문론>(1956), <세계신문소사>(1959)에서 미국신문사를 간략하나마 소개했고 1959년 간행된 <현대신문전서>의 “신문의 역사” 부분에서 외국의 신문 제 1장에 미국신문의 역사가 정리된 바 있다. 한국에서 간행된 본격적 세계신문사로 평가되는 1967년 임근수의 <신문발달사>는 그 이전에 발행한 책보다 미국신문사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 후 1982년 이상철이 <커뮤니케이션발달사>의 제 3부에서 미국신문사를 정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신문사를 독립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간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차배근이 편역한 <미국신문사>는 미국신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물론 이 책은 차배근 스스로 부실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한 바와 같이 2차 문헌을 정리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2014년 차배근은 이 책을 대폭 보완한 <미국신문발달사: 1690~1960>를 간행했다. 책의 체계를 더 갖추고,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구성한 작업이었다. 이 책은 모트(Mott)의 <미국 저널리즘역사>(*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3rd ed., 1962)의 시대구분을 참조해 미국 최초의 신문이 출현한 1690년부터 1960년까지의 미국신문 발달의 역사를 10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사회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 각 시기 신문 발달과정의 중요한 특징과 동태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미국신문의 역사를 개관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이 시기 미국신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자세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이 책 역시 기본적으로 1983년의 <미국신문사>와 비슷하게 모트의 저서를 기본으로 여러 참고문헌을 활용했는데 통사(通史)라는 성격에 맞게 문장이 평이해 부담 없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다. 전기형식으로 풀리처(Pulitzer)의 일생을 정리한 부록도 흥미 있는 읽을거리다.

이 책의 서평에서 이준웅이 “언론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발판으로 삼아 언론에 대한 심화된 학문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2015, 90쪽)라고 지적했듯이 이 책을 통해 언론인 전문직주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 언론 산업모형의 발전, 언론자유의 제도적 조건 등 언론학의 핵심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3) 중국언론사

우리나라에서 중국언론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28년 장봉조가 <현대평론>에 발표한 “중국신문사 개관”이다. 이 글은 제 3절 제 4항 목 ‘공화(共和) 이후의 중국신문’에서 시작해 제 4절 ‘중국신문의 제특징’, 제 5절 ‘중국신문 현상개관’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⁴⁾ 이 글은 중국문헌을 참고하여 신문 역사의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했다.⁵⁾ 일제시기 중국의 신문학과 신문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있었고 관련문헌을 읽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김영희, 2013). 그 후 1948년 이해창이 발행한 <신문평론> 제 4호에 ‘중국언론특집’으로 5편의 글을 실고 중국신문 연구문헌을 정리해 놓았으나 중국언론의 역사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후 중국언론사 연구는 한동안 이뤄진 적이 없다가 1969년 임근수가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 생성과정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를 시작으로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한·중·일을 중심으로”(1973)와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승전)”(1974)를 잇달아 발표해 한국의 언론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양문화권의 중국과 일본 언론사로 언론사의 연구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출현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언론사 연구에서 중국언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있었지만 관련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더군다나 중국 전근대언론사에 대해서는 연구된 적이 전혀 없었다.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교류가 단절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배근은 1984년 <중국전근대언론사>를, 그 이듬해인 1985년 <중국근대언론사>를 저술한 것이다.

차배근은 “우리와 역사적·문화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가져왔던 중국의 신문사를 알고 그것과 우리 것을 비교하면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신문 내지 언론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자는 희망으로 책을 내었다고 밝혔다(차배근, 1984, iv쪽). 이 책은 타이베이(臺北)에서 간행한 중국신문사 관련서적 6권과 영어서적 2권을 주로 참고했다. 서술범위는 중국 고대인 기원전 2205년의 하(夏) 나라에서 시작하여 1912년 청나라(清代) 시기의 신

4) <현대평론> 그 이전 호를 조사했으나 장봉조의 글이 없다. 따라서 장봉조가 이 글의 전편을 어느 지면에 발표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5) 장봉조는 참고문헌으로 능소호(能少豪)의 <最近 50年 北支那新聞史略>, 진리제(秦理齊)의 <中國報紙進化小史>(1872-1922), 소진청(邵振靑)의 <新聞學總論>, 신보사(申報社)의 <最近之 50年>과 영문백과사전 *The Encyclopedia Senica* (S. Conling, 1917) 등 5권을 제시했다.

문헌상, 언론사상, 민의수렴(여론) 현상 등이었다. 차배근이 밝혔듯이 이 책은 2차 문헌을 활용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된 1984년 중국에서도 전근대언론현상을 다룬 단행본이 없던 형편에서 중국의 전근대언론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출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책을 쓰면서 차배근은 중국 한대(漢代)에 출현한 <저보>(邸報)에서 당(唐), 송(宋), 명(明), 청(淸)대에 이르는 <저보>에 대해 정치사회상황, 통제, 뉴스원과 내용, 배포, 독자 등 언론현상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1984)을 발표했다.

이어서 발행한 <중국근대언론사> 머리말에서 차배근은 “개항 이후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중국의 근대언론사를 소개, 동학으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 것과 비교해 보면서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언론사는 물론이고 동양의 언론사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집필했다고 저술동기를 설명했다. 책의 서술대상 시기는 1815년 중국 최초의 근대적인 중국어잡지 <찰세속매월통기전>(察世俗每月統紀傳) 창간에서 1949년 중국 국민당정부가 타이완으로 철수하던 때까지였다. 이 책도 차배근 자신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중화민국(타이완)에서 발행된 중국언론사 서적을 주로 참고해 저술한 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국 근대언론사를 주제로 한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차배근은 이어 2004년과 2005년 중국 대련(大連) 외국어대 교수 이민과 공저 논문으로 중국 근대신문의 선구지 <循環日報>에 대한 논문 2편을 발표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순환일보>의 창간을 주도한 왕타오(王翰)에 대한 전기적 연구와 그의 사상을 고찰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순환일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한다(차배근·이민, 2004, 6-7쪽). 그런 점에서 이 두 논문은 <순환일보>의 창간배경, 창간과정과 편집 방침, 내용 및 영향을 자세히 고찰한 연구로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언론사에 대한 연구관심을 지속한 차배근은 정년퇴직 이후인 2008년 타이완의 문헌과 함께 중국에서 발행한 문헌을 많이 활용하여 중국 공산당관계 언론사를 포함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국근대언론사>를 보완한 <중국 근대언론발달사: 1815~1945>를 저술했다. 중국의 잡지, 통신, 방송 및 신문학 교육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주요 신문사진을 다수 수록하고 주목되는 원 사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중국언론사에 대한 차배근의 지식과 안목이 더욱 깊어진 것이 나타나는 저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한국언론사

(1) 전근대언론 <조보> 연구

우리나라에서 전근대신문 <조보>가 신문의 기원이라는 것은 개화기에 유길준이 <서유견문>(西遊見聞) 제 17편의 신문 항목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95/1995, 394~395쪽). 안재홍도 1927년 최남선의 설명을 참고하여 <조보>와 <인행조보>(印行朝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안재홍, 1927, 1935; 김영희, 2013). <조보>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한 초기연구는 1935년 최남선의 연구이다. 최남선은 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을 설명하면서 사초(史草)의 중요한 재료인 <조보>의 제작방법, <조보>의 내용, <조보>와 기별의 관계, 기별의 일종인 분발에 대해 고찰했다(최남선, 1935/1973, 79-129쪽). 그 후 현대에서는 안재홍과 같은 관점으로 <조보>와 <저보>를 설명한 천관우의 연구가 있다(천관우, 1963). 이후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가 1978년 박정규가 <조보>의 기원에 대해 관련사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고찰했다(박정규, 1978).

이어 1980년 차배근이 한국신문의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조보>의 생성과정, <조보>의 성격과 발행기관, <조보>의 내용과 형태, <조보>의 배포방법·대상독자 및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이 논문은 차배근이 역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두 번째로 발표한 논문이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기존의 언론사 연구와는 다르게 발행주체와 관련된 요인(언론통제요인), 내용분석, 전달과 수용 및 영향이라는 신문학적 연구체계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연구문제를 고찰한 연구로서 역사적 문헌연구이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조보>를 주제로 한 박정규의 박사학위 논문은 차배근의 분석체계를 활용한 연구였다(박정규, 1982). 차배근은 결론에서 우리나라 근대신문 생성은 전적으로 서양문물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조보>가 우리나라 신문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조보>가 근대신문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근대신문의 출현에 대해 이식설을 제기한 임근수의 해석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논문 서두의 각주에서 밝혔듯이 출처 및 필자 미상의 “우리나라 신문의 원형으로서의 기별지(奇別紙)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많이 참조한 것이므로 온전히 그의 연구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2) 개화기 신문생성과정 해석

차배근이 1996년 발표한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 이식설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는 개화기 한국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임근수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이 논문의 1차적 의의는 1975년 임근수가 제기한 이식설에 대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배근이 새로운 가설로 논의를 확장하여 선학의 연구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차배근은 먼저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해 임근수가 이식설(移植說, a transplantation theory)이라는 하나의 학설을 제기하여 해석하려 한 것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근대신문 생성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역사해석적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배근은 임근수가 “우리나라 근대신문은 서양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그 전반적 근대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공적 또는 타율적 노력에 의하여 비자연발생적으로 부식되어진 것으로서, 즉 서구 근대신문의 ‘묘목의 이식-착근-배양-생장’이 그 생성의 기본공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 공식에 따라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생성과정도 설명되어야 한다”(임근수, 1975, 127쪽)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생성을 전적으로 서양 언론문물의 타율적 수용이라고 보는 이식설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차배근은 이식설에 대한 대안적 가설로서 접목잡종설(接木雜種說, a graft hybrid hypothesis)을 제시했다. 접목잡종설의 의미는 우리나라 근대신문이 서구사회의 근대적 언론문물을 받아들여 형성되었지만 서양 언론문물을 그대로 이식한 것은 아니며 그것을 능동적이고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의 전통적 신문현상에 접목시킨 것으로서 우리 근대신문은 서양의 근대신문과 우리의 전통적 신문현상의 중간의 형질을 지니게 된 잡종이라는 것이다(차배근, 1996, 29-30쪽). 접목잡종설이라는 식물학적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생성을 서양 언론문물의 능동적 수용이며 전통적 신문현상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념사적으로 볼 때도 조선시대의 언론과 공론 개념에 저널리즘의 의미가 추가되기 시작했고 〈독립신문〉 논설에서 간관을 두고 언론을 넓히려 한 전통을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독립신문〉, 1899, 1, 10, ‘논설 언권 주유’), 개화기 〈독립신문〉의 언론개념이 서구 언론개념만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발행을 주도했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신학문을 배워 개화사상을 적극 수용한 인물이지만 기본적으로 한학이 학문적 배경이고 조선사회의 언론개념에 근대적인 서구 저널리즘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희·최운호·윤상길, 2011).

(3) 개화기 일본 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 연구

이 논문에서 이어 개화기 언론현상에서 차배근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개화기 일본에 유학 간 조선인 유학생들이 발간했던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와 관련한 연구였다. 차배근은 1998년과 1999년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후 2000년 크라운판으로 <친목회회보> 제 1호에서 6호까지의 영인본을 부록으로 하여 전체 963쪽 분량의 연구서 <개화기 일본 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 I>를 간행했다. 차배근이 선언한 제 2학문인생기에 계획한 달지한국언론사연구총서 10권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였다.

이 책은 차배근이 본격적인 한국언론사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간행한 저술로 사료접근과 활용, 역사연구 구성방식, 사료해석 등 차배근의 역사연구의 구체적 실체를 잘 보여주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친목회회보>에 대한 본격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영인본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친목회회보> 6호를 전부 모아 부록으로 실어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는 것도 이 책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차배근이 한국언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화두처럼 지녔던 주제는 우리나라 근대언론은 어떻게 생성,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 관심에서 개화기에 우리보다 앞서 개화를 이룩했던 일본에 가서 근대적인 언론문물을 보고 배운 유학생들이 만든 <친목회회보>의 창간과정에서 중간까지의 발간과정과 발간목적 및 잡지의 주요내용을 분석, 평가한 저술이었다.

이 책은 각 장마다 관련사료를 광범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많은 각주로 상황을 보충 설명했다. 또한 사진과 중요문서 등을 참고자료로 전문을 제공해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게 했다. 차배근의 실증주의 분석방법 전공학자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언론사 연구사례는 이 책의 제 6장이다. 6장은 내용분석방법으로 <친목회회보>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친목회회보>의 발간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고찰했다. 제시된 연구문제는 그가 역사를 연구하면서도 양적 연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제에 접근했음을 보여준다(차배근, 2000, 356쪽).

차배근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문기사를 사설, 논설, 문원(文苑), 내보, 외보, 만국사보(萬國事報), 잡보, 연설, 강연, 회중기사(會中記事, 친목회 동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평균길이, 구성비율, 구성비율 순위 등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다시 각 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친목회회보>는 단순히 유학생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목회 회원과 일본의 우리나라 유학생 및 모국 동포에게 선진 문물 제도와 국제정세 등 문명개화 자주독립을 위한 지식을 습득시켜 개화사상과 자주독립사상을 고취하려는 일종의 계몽잡지였고 모국의 계몽적 잡지발간을 자극했다. 따라서 차

배근은 <친목회회보>가 일본에서 출현했지만 우리 동포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근대적 국문잡지이므로 우리나라 잡지의 효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한국잡지사를 연구한 김근수는 한국잡지란 한국인이 한국인을 위해 편집·발행하고 국문으로 발행하는 잡지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일본에서 발행한 <친목회회보>를 한국 최초의 잡지로 평가한 바 있다(김근수, 1992, 7, 17쪽). 그런데 차배근은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해 <친목회회보>를 근대잡지의 효시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서는 개화기 언론사 연구에서 드문 체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사례로 평가된다.

(4) 일제 식민지 시기 신문사 개관

차배근과 오진환, 정진석, 이광재, 임춘수, 신인섭 등 6인 공저로 간행한 한국신문통사 <우리 신문 100년>(2001)은 일반인에게 널리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한 교양서이다. 교양서로서 사진자료를 많이 활용해 신문과 관련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에서 차배근이 집필한 II장 일제 식민지 시기는 장의 제목을 ‘수난기’(1910~1945)로 하여 첫째, 한일합방과 민족지의 소멸, 둘째, 3·1운동과 민족지의 재생과 발전, 셋째, 일제의 침략과 민족지의 재소멸과 같이 구성했다.

이 기간의 서술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다. 첫째, 1절에서 ‘해외발행 신문의 항일 구국투쟁’, 2절에서 ‘해외 신문발행과 국내배포의 통제’, 3절에서 ‘해외 우리 신문의 수난’ 등 해외에서 독립지사가 독립투쟁의 일환으로 발행한 신문을 독립된 항목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차배근이 해외에서 발행되었던 교포신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경영의 민간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3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으로 친일적 경향을 보였다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양서이므로 부정적 측면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는 것이 저술방향이었는지 모르지만 비록 교양서라도 이 시기 두 신문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영향 내지 한계도 함께 서술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서술은 미국신문발달사 서술에서 영웅 콤플렉스를 경계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려 한 것과 비교된다. 이것은 차배근 자신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기존연구를 이용한 서술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아쉽다. 오늘날 국사학계에서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은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한일합방’(韓日合邦)은 ‘일본에 의한 한국의 강제병합(強制併合)’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1920년 창간한 신문에 대해 ‘민족지’(民族紙)라는 표현보다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한국인) 발행

민간신문(民間新聞)’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좀더 객관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해외 교포언론사

차배근이 역사연구에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연구한 주제는 하와이 교포신문사를 다룬 “포와한교신문사약고”(布哇韓僑新聞史略攷)이다. 한국언론사 연구에서 하와이 교포언론의 역사는 1971년 이해창이 <한국신문사연구>에서 처음 소개한 바 있다. 이해창은 저서 제 3편 해외국문지의 변천의 제 2절 미주·하와이방면에서 1904년 첫 출현한 <신조신문>(新朝新聞)에서 1950년대 <태평양주보>까지 창간과정, 발간목적과 주요내용 등을 자료중심으로 설명했다. 그 후 거의 소개된 적이 없었는데 차배근이 하와이대학 이스트웨스트센터에 연수를 간 기회에 모은 자료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하와이 교포신문의 실물이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재미한인사략>(在美韓人史略, 1951), <재미한인50년사>(1959), *The Koreans in Hawaii* (1970), *Koreans in America* (1971) 등의 문헌을 활용해 국내에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이후 하와이 교포신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그 후 차배근이 관심을 가진 교포언론사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의 교포언론사였다. 차배근이 1990년 중국 연길(延吉)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4년 “중국한민족교포언론의 시원고(始源攷)”를, 1995년 “모택동(毛澤東) 시기 중국의 한민족신문언론: 사회주의 언론체제로의 그 전환과정”을 발표했다. 1994년 논문은 개화기 중국 교포언론의 효시가 무엇인지 고찰한 연구이다.

이어 1997년 중국 연변일보사 전 사장 오태호와 함께 <중국 조선민족 언론사>를 발간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이전은 정진석이 <한국언론사> 제 13장에서 개화기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의 만주방면 신문을 소개한 바 있다(정진석, 1990). 그 후 중국 연변대학 조문학부 최상철 교수가 국내에서 <중국조선족언론사>(1996)를 간행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1900년대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신문의 생성과정에서 1980년대까지의 신문, 방송, 잡지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업이었다. 그러나 90여 년간의 역사를 다루느라 주요 미디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이 책과 비교할 때 차배근과 오태호의 공저는 1945년 이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민족의 신문, 잡지, 출판, 방송을 다루고 있고 지역으로는 연변지역, 만주지역과 함께 북경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크라운판으로 본문 분량이 최상철의 저서보다 2배 이상이고 중국 현지문헌을 많이 활용하여 더욱 자세하다.

(6) 대학신문사

우리나라에서 대학신문의 역사가 처음 정리된 것은 연세춘추동인회가 1995년 펴낸 <연세춘추 60년: 1935~1995>이다. 한국 지식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대학사회의 움직임에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1차 자료라 할 수 있는 대학신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2004년 차배근이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 1952~1961>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대가 발행하는 <대학신문>의 역사를 다루기에 앞서 제 1장에서 전사(前史): <대학신문>(大學新聞) 이전에 출현한 우리나라 대학신문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다. 제 1장은 첫째, 대학신문의 효시와 다른 나라에서 그 발전, 둘째, 한국에서 대학신문의 탄생과 일제시대의 실태, 셋째, 광복 후 대학신문의 속출과 한국전쟁까지의 실태, 넷째, <대학신문> 창간이전의 서울대학교의 신문들 등 4절로 구성되었다.

차배근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신문은 평양 송실대학에서 1912년 또는 1919년에 창간한 <송대시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 실제 발간여부는 확실하지 않다(차배근, 2004, 4-10쪽).⁶⁾ 실물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신문은 1935년 연희전문학교가 창간한 <연전타임스>로, 차배근은 <연전타임스>의 창간취지, 편집체제와 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서울대가 발행하는 <대학신문>의 창간과정에서 제 2공화국시기까지의 초기 역사를 정리했다. 창간준비 과정, 창간초기의 편집체제, 창간기념사, 주요 편집진과 운영과정의 변화, 특집호 내용, <대학신문>이 주최한 각종 문화행사 내용, 4·19혁명 당시의 신문내용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 창간초기부터 1960년대 초반 서울대와 당시 한국 지식사회 상황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4.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의의

이상에서 달지(達支)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에 대해 언론사를 연구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관점과 연구방법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후 언론사를 주제로 한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해 고찰했다.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언론사의 연구사적 관점에서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의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6) <송대시보>의 발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신문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신문학반에서 1929년 창간한 등사판 영자신문 *The Ewha Weekly News Sheet*이다(김영희, 2012, 141-142쪽).

한국언론학계에 본격적인 실험연구방법을 처음 소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방법론 교재를 쓴 대표적인 실증주의 언론학자 차배근이 언론사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그가 밝힌 대로 처음에는 우리나라 언론사를 공부해 해외에 알리고 싶었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자신의 전공 연구로 되돌아갔다가 7~8년간의 방황을 거쳐 결국 언론사 연구를 본격화하게 된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실증주의 연구가 지배하면서 비역사적 혹은 몰역사적으로 전개되는 한국언론학계의 현실에 대한 차배근의 자기반성 속에 “어떤 연구든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한국언론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한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식은 한국의 언론학자로서 후세에 오랫동안 전해질 책을 남기려면 한국언론사 연구를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언론학자로서 연구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한국언론사 연구에서 찾은 것이다. 이런 차배근의 방황과 언론사 연구로의 전향은 어쩌면 한국언론학계 전체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지도 모른다.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언론사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연구대상과 영역, 세계언론사에서 미국신문사, 중국 전근대언론사, 중국 근대언론사, 일본의 서양 근대언론사 수용을 연구했고 한국언론사에서 전근대언론 <조보>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로의 접근, 개화기 일본 유학생의 언론출판활동, 중국 조선민족언론사, 대학신문사 등을 연구대상으로 개척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은 차배근이 언론사 연구에 비교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교사적 관점의 연구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이외에도 사료접근이 어려워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차배근은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한국 근대언론 형성과정과 전근대언론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언론사 연구에 앞서 한문, 중국어와 일본어를 새로 배우고 관련문헌을 수집해 외국언론사 연구를 꾸준히 수행한 것이다.

차배근의 언론사 연구에서 의미 있는 다른 하나는 언론사 연구에서 발행주체와 관련된 요인, 내용분석, 전달과 수용 및 영향이라는 언론학적 연구체계를 활용해 언론사 연구에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양적 연구방법론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 내용분석방법으로 미디어 내용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평가하는 더욱 분석적 방법을 시도한 것도 언론사 연구의 분석수준을 높인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화기 근대언론 생성에 관해 접목잡종설이라는 새로운 관점으

로 역사해석을 시도한 것도 언론사 연구사에서 이전에 없던 신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차배근은 문장 사용에서 〈미국신문발달사〉의 예에서 보듯 통사(通史)의 문장을 평이한 문장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대중적 교양서의 성격을 보이도록 서술했다. 전문연구서 집필이 연구의의가 크지만 일반 독자가 언론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역사의 대중화 작업 역시 연구자의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차배근은 통사가 교양서로 읽힐 수 있도록 신경 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친목회회보〉 연구서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하고 전문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유학생의 역사와 실태 등에 관해서도 쓸데없을 정도로 길게 소개하다보니 산만한 느낌도 없지 않다”(차배근, 2000, viii쪽)고 밝힌 바와 같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세밀하게 서술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실증주의 연구자의 연구성향이 역사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차배근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 전공학자로서 많은 교과서를 집필했고 실험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연구서를 저술했다. 그런 업적도 상당한데 차배근 스스로 제 2학문인생 과제로 설정한 언론사 연구에도 전념하여 또 많은 연구업적을 내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차배근은 대형 크기인 크라운판형에 많은 분량의 〈중국근대 언론발달사〉(2008), 〈사회과학 연구방법: 실증연구의 원리와 실제〉(2013, 공저), 〈미국신문발달사〉(2014) 등을 꾸준히 간행했고 〈한국커뮤니케이션학사〉는 2016년 8월 현재 발간 중이다. 현재까지의 업적만으로도 차배근은 평생을 학문을 탐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언론학 연구사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런데 2016년 오늘도 차배근은 자신이 계획한 한국언론사 연구서 저술을 계속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대원 (편) (1959). 〈세계신문소사〉. 서울: 서울신문학원.
- 김근수 (1992). 〈한국잡지사연구〉. 서울: 한국학연구소.
- 김동성 (1947). 미국 신문계의 현황. 〈신문평론〉 창간호, 19-21.
- 김수태 (2000). 신민족주의사학론. 〈역사민속학〉, 11, 83-105.
- 김영희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32-155.
- 김영희 (2013). 일제강점기 한국 언론사연구와 안재홍의 “조선신문소사”. 〈한국언론정보학보〉, 64호, 85-108.

- 김영희 · 최운호 · 윤상길 (2011). 독립신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독립신문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5-29.
- 김정기 (2006). 학문적 초심을 노년까지 그대로 지키는 귀감: 차배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2호, 233-256.
- 달지차배근교수정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2007). <達支차배근교수정년기념문집 S-M-C-R-E>. 파주: 나남.
- 류시현 (2011).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운동'과 민족사 서술. <아시아문화연구>, 22집, 25-52.
- 미국공보원 (1948). 미국신문론. <신문평론>, 4호, 42-45.
- 박기준 (1948). 미국 신문계의 이모저모. <신문평론>, 5호, 10-12.
- 박정규 (1978). <조보>의 기원에 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15호, 115-134.
- 박정규 (1982).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朝報>와 그 유사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홍 (1927, 1, 5~9). 조선신문사론. <조선일보>.
- 안재홍 (1935, 7, 6~26). 조선신문소사. <조선일보>.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92). <짜널리 줌 · 新聞評論> 영인본 1~5호(1947~1948)에 재수록. 한국언론전문지총서 2.
- 연세춘추동인회 (편) (1995). <연세춘추 60년: 1935~1995>. 서울: 연세춘추동인회.
- 유길준 (1895). <서유견문(西遊見聞)>. 허경진 (역) (1995). 서울: 한양출판.
- 이상철 (1982). <커뮤니케이션발달사>. 서울: 일지사.
- 이준웅 (2015). 미국 언론에 대한 본격 교과서: <미국신문발달사>, 차배근 저 <서평>. <신문과 방송>, 532호, 89-92.
- 이진한 (2011). 손진태의 삶과 신민족주의 사학의 전개.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편), <남북민족지성의 삶과 정신> (173-207쪽). 서울: 선인.
- 이해창 (1971). <한국신문사 연구>. 서울: 성문각.
- 임근수 (1967). <신문발달사>. 서울: 정음사.
- 임근수 (1969).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한국 · 중국 · 일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2권 4호, 161-211.
- 임근수 (1973).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10호, 3-51.
- 임근수 (1974).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승전):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11호, 3-50.
- 임근수 (1975). 한국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일고찰. <신문연구>, 116-146. <언론과 역사> (207~235쪽) 서울: 정음사.
- 장봉조 (1928). 中國新聞史 개관. <현대평론>, 2권 1호. 국학자료원 (1993). 영인판, 43-55.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차배근 (1976).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서울: 세영사.
- 차배근 (1979).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차배근 (1987).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신문연구소학보>, 24권, 49-101.

- 차배근 (1988).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 서울: 세영사.
- 차배근 (1989).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언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주제논문집 <언론학 교육의 성찰> (3-62쪽). 서울: 한국언론학회.
- 차배근 (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차배근 (1992). 한국 언론학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학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언론학보>, 12권, 145-177.
- 차배근·차경옥 (2013). <사회과학 연구방법: 실증연구의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천관우 (1963). 한국 新聞前史의 몇 가지 문제. 고재욱선생화갑기념논총편찬위원회 (편), <민족과 자유와 언론> (411-444쪽). 서울: 일조각.
- 최남선 (1935). <古事千字>.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1973). <육당최남선전집 4> (79-129쪽). 서울: 현암사.
- 최상철 (1996). <중국조선족언론사>.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한국언론학회 (2001). <언론학 교과목 현황 자료집>. 서울: 한국언론학회.
- 홍동호 (편) (1956). <신문론: 신문·사회·기자>. 서울: 정양사.

Mott, F. L. (1962). *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1690-1960*. New York, NY: Macmillan.

최초 투고일 2016년 6월 7일

게재 확정일 2016년 7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6년 7월 22일

부록. 차배근의 언론사/언론학사 및 교육사 관련 연구목록

저서

- 차배근 (1983). <미국신문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차배근 (1984). <중국전근대언론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차배근 (1985). <중국근대언론사>. 서울: 나남.
차배근 (2000). <개화기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 I: 1884~1898>. 서울: 서울대학출판부.
차배근 (2004).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 1952~196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차배근 (2008). <중국근대언론발달사: 1815~1945>.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차배근 (2014). <미국신문발달사: 1690~196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차배근 (발간 중). <한국커뮤니케이션학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차배근·오태호 (1997). <중국조선민족언론사: 1945~199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차배근 외 (2001).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차배근 외 (편) (1977). <한국신문학 오십년사: 희관임근수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 정음사.

논문

- 차배근 (1980). 布哇韓僑新聞史略攷. <신문학보>, 13호, 55-82.
차배근 (1980). 우리나라 <조보>(朝報)에 대한 신문학적 분석고: 한국신문의 원형으로서의 그 사적 의의. <신문연구소학보>, 17호, 63-102.
차배근 (1980). 교회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방송의 설득적 기능. <방송대학>, 10권, 47-52.
차배근 (1981). 중공의 <新華通訊社>에 관한 소고: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18호, 65-90.
차배근 (1982). 한국사회의 역사적 환경과 방송매체의 발달. <방송대학>, 12권, 6-16.
차배근 (1982). 미국대학에서의 신문학교육의 성립·발전고: <미주리대학 신문학부>의 설립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19호, 31-70.
차배근 (1984). 중국 <邸報>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朝報>와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신문연구소학보>, 21호, 53-99.
차배근 (1990). 睇觀 임근수 박사의 언론사 연구입장. <고희관임근수박사추모 언론사 연구발표회 논문집> (1-24쪽). 서울: 서울대 신문연구소·한국언론학회 언론사연구회.
차배근 (1993). 한국 언론학의 생성과정에 관하여. 김동철 교수 정년퇴임논문집간행위원회 (편),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 (77-104쪽). 서울: 나남.
차배근 (1994). 중국한민족교포언론의 始源攷. <언론정보연구>, 31집, 19-49.

- 차배근 (1995). 毛澤東 시기 중국의 한민족신문언론: 사회주의 언론체제로의 그 전환과정. <언론정보연구>, 32호, 55-104.
- 차배근 (1996).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 이식설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호, 5-33.
- 차배근 (1998). 대조선인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에 관한 연구: 그 창간취지·경위·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35호, 1-56.
- 차배근 (1999). 신문에 관한 초기의 역사적 연구의 실태와 발전. <중이신문 100년 학술 심포지엄논문집> (95-104쪽). 서울: 한국언론학회.
- 차배근 (1999). 대조선인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에 관한 연구 (속): 창간후 중간호까지의 발간 실태와 주요 내용. <언론정보연구>, 36호, 79-157.
- 차배근 (2001). 조선조후기의 북학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중국언론에 관한 특집에 제하여. <언론정보연구>, 38호, 7-32.
- 차배근 (2003). 江戸시대말 일본의 서양언론문물 수용과정에 관한 소고. <언론정보연구>, 40호 집, 55-80.
- 차배근 (2006). 신문학 교육의 태동. 한국언론인연합회 (편), <한국언론100년사> (986-1009). 서울: 한국언론인연합회.
- 차배근·李民 (2004). 중국 근대신문의 선구지 <순환일보>에 관한 소고 1: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과 동기. <언론정보연구>, 41권 2호, 5-42.
- 차배근·李民 (2005). 중국 근대신문의 선구지 <순환일보>에 관한 소고 2: 창간과정·편집방침·내용 및 영향. <언론정보연구>, 42권 1호, 5-31.
- 車培根 (2004). 韓國의新聞學研究與教育簡史. 郭鎮之主 (編), <文化交流與研究>. 北京: 廣播學院出版社.
- 車培根 (1999). 朝鮮人の日本留學の始まりとその経緯. <アサラン通信>, No. 19.
- 車培根 (2001). 韓國人留學生をとおしてみ近代日韓コミヨソ史: その先驅者 李樹廷の活動を中心に. <東京大ソウル大國際シソホジウム論文集>, 2001. 7.

기고문

- 차배근 (2009). 한국언론학회를 일군 사람들 한국신문학회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0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97-187쪽). 서울: 한국언론학회.
- 차배근 (2009). 30명으로 발족해, 천 명이 넘는 학회로 발전: 한국 언론학의 과거와 현재. <신문과 방송>, 462호, 40-45.

Greatly Expand the Scope and Subject of Study: Cha, Bae Keun's Researches o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Younghee Kim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Cha, Bae Keun's main achievements o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among his various research achievements, and considered about its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histor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Most noticeable in his research o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is that the scope and subject of study was greatly expanded. He publishe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journalism which has little or rare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world media history in Korea, the history of Chinese pre-modern journalism, and the development of Chinese modern journalism. And he developed new subjects of study, such as *Chobo*, a Korean pre-modern newspaper i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in Korea, journalism & publishing activity by Korean students in Japa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history of the Chinese-Korean journalism, and university newspapers, etc. He realized that a comparative historic point of view was necessary for the stud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Also he suggested more systematic and analytic research frame by applying media studies system, and raised the levels of analysis by utilizing the content analysis. Even for just his achievement to date a scholar who has devoted his life to research, it c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research histor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Keywords: Cha, Bae Keun, research o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research histor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